

여론조사꽃 제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5_02

ARS+CATI

제36차 ARS조사

제21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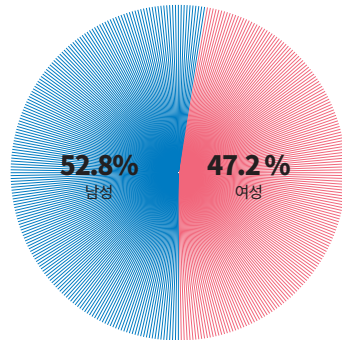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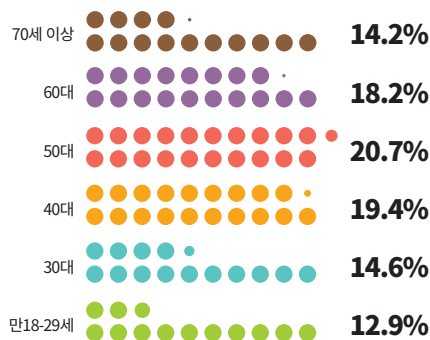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3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5% [총 통화시도 28,372명]
조사기간	2023년 5월 5일 ~ 5월 6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30	52.8	498	49.7	0.94
		여성	473	47.2	505	50.3	1.07
연령		만18~29세	129	12.9	165	16.5	1.28
		30대	146	14.6	151	15.1	1.03
		40대	195	19.4	181	18.0	0.93
		50대	208	20.7	196	19.5	0.94
		60대	183	18.2	170	16.9	0.93
		70세 이상	142	14.2	140	14.0	0.99
지역		서울	193	19.2	188	18.7	0.97
		인천·경기	314	31.3	319	31.8	1.02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6	10.6	0.96
		광주·전라	93	9.3	97	9.7	1.04
		대구·경북	100	10.0	99	9.9	0.99
		부산·울산·경남	146	14.6	150	15.0	1.03
		강원·제주	47	4.7	44	4.4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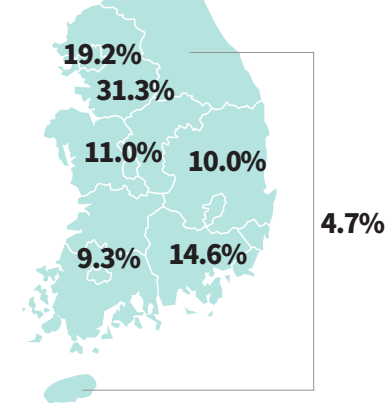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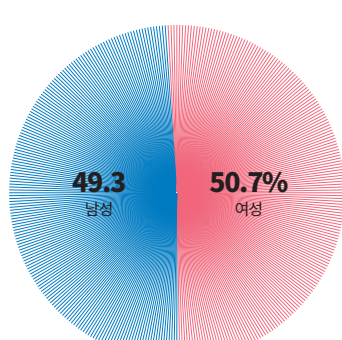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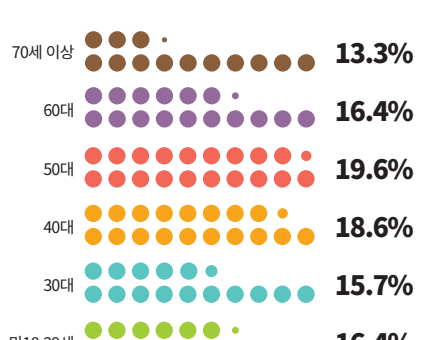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4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7.2% [총 통화시도 5,907명]
조사기간	2023년 5월 5일 ~ 5월 6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7	100.0%	1017	100.0%	1.00
성별		남성	501	49.3	506	49.8	1.01
		여성	516	50.7	511	50.2	0.99
연령		만18~29세	167	16.4	167	16.4	1.00
		30대	160	15.7	151	14.8	0.94
		40대	189	18.6	186	18.3	0.98
		50대	199	19.6	198	19.5	0.99
		60대	167	16.4	173	17.0	1.04
		70세 이상	135	13.3	142	14.0	1.05
지역		서울	193	19.0	190	18.7	0.98
		인천·경기	321	31.6	325	32.0	1.01
		대전·세종·충청	106	10.4	107	10.5	1.01
		광주·전라	98	9.6	99	9.7	1.01
		대구·경북	100	9.8	100	9.8	1.00
		부산·울산·경남	155	15.2	151	14.8	0.97
		강원·제주	44	4.3	45	4.4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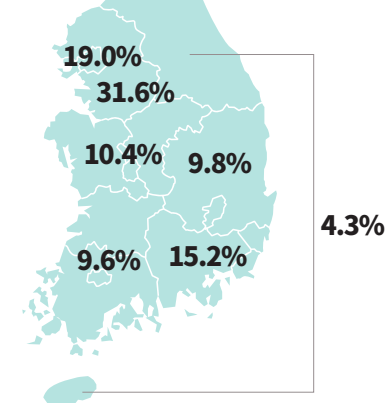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에는 표본조사이므로 결맞음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맞음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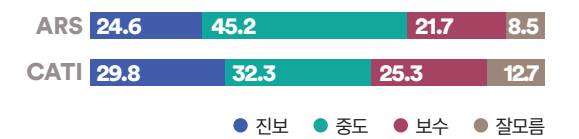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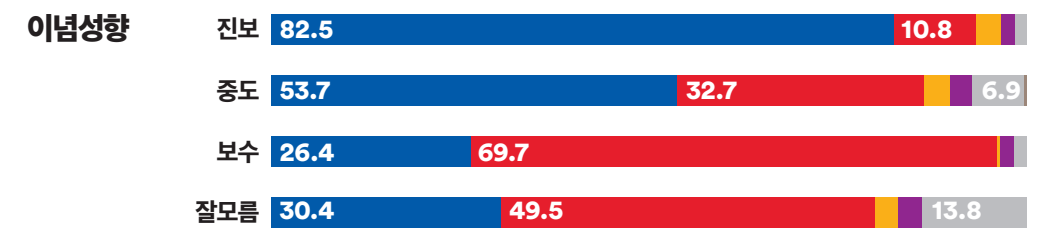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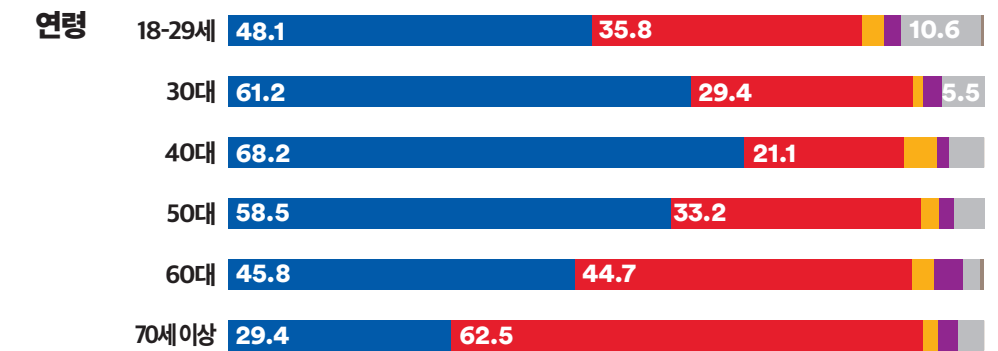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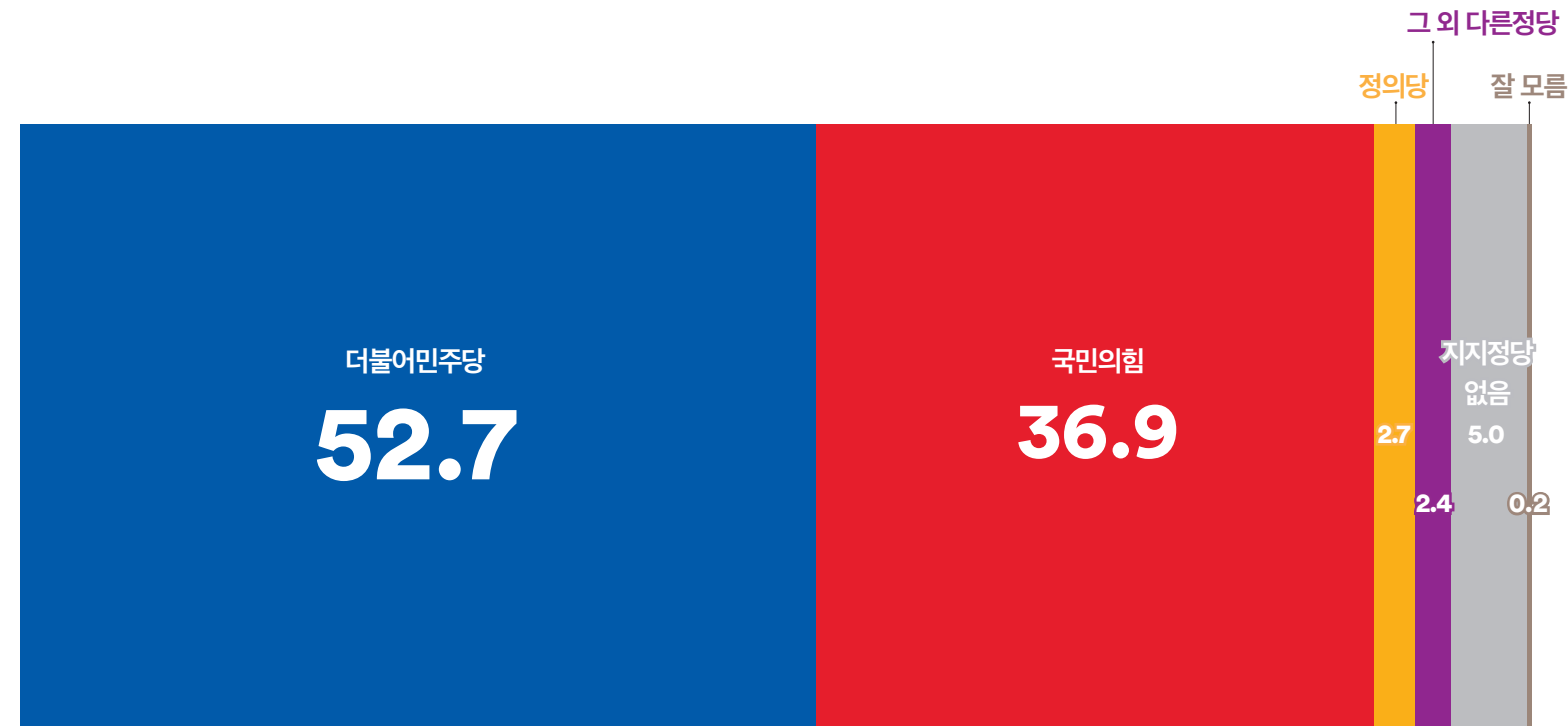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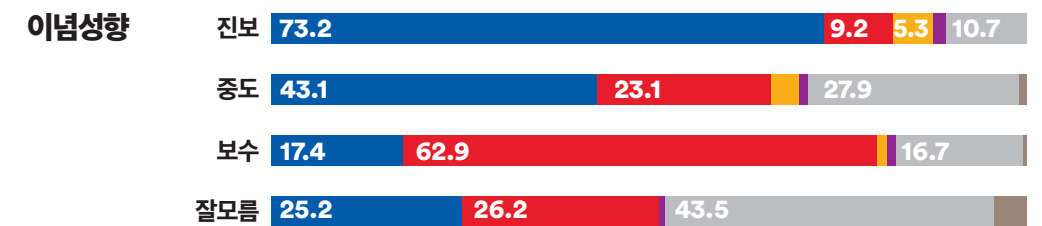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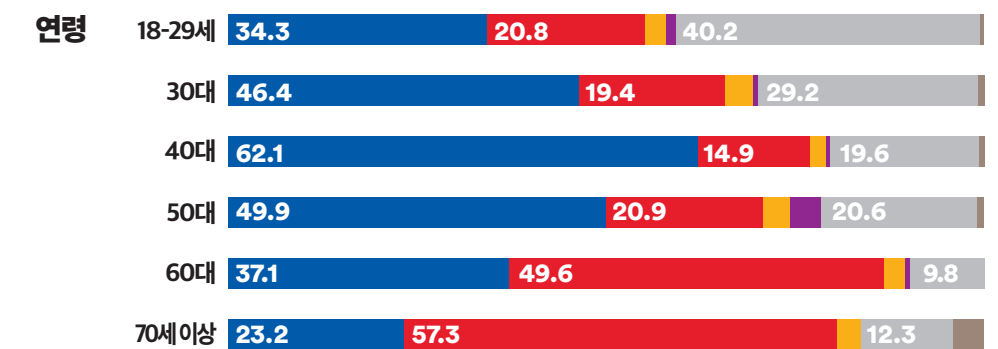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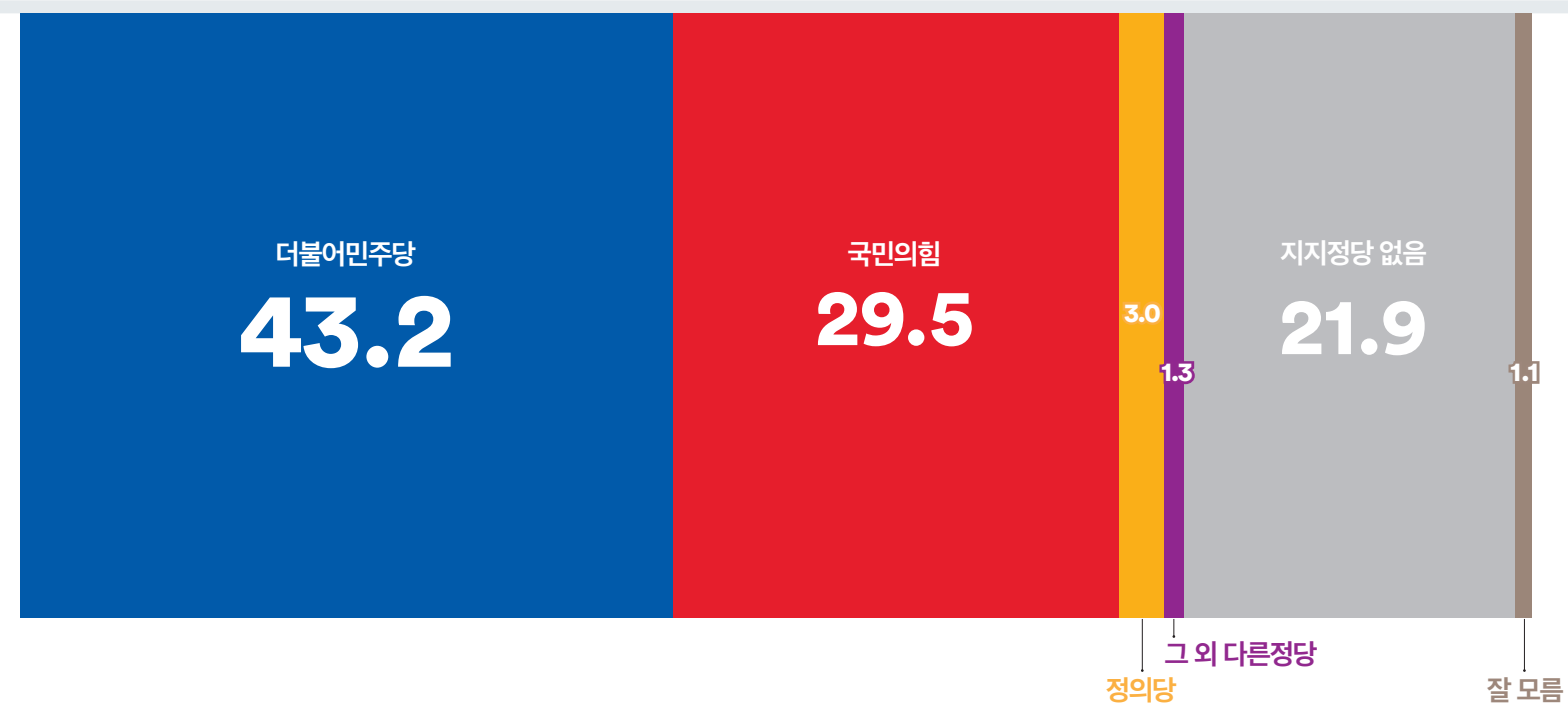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2.5%p 하락(격차 15.8%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4%p 상승, 국민의힘 1.3%p 하락(격차 13.7%p)
 CATI와 ARS 조사 모두 충청·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승, 국민의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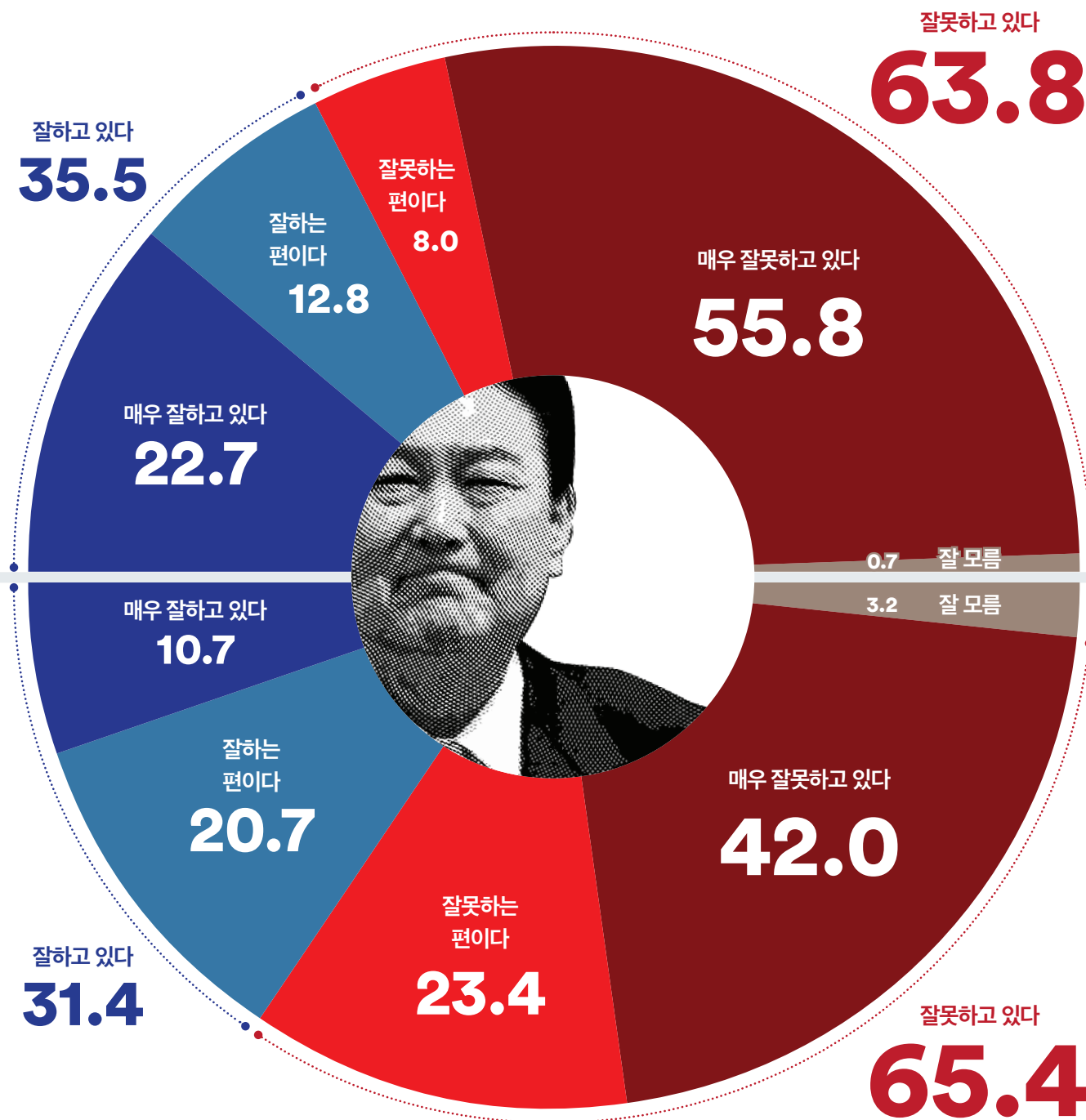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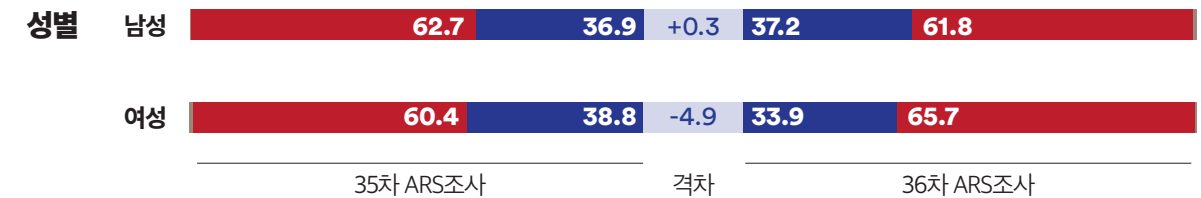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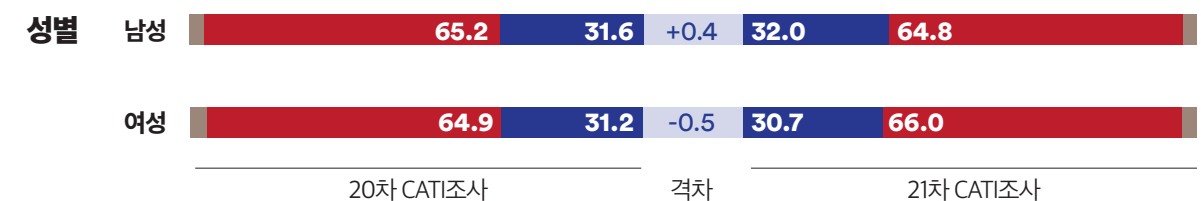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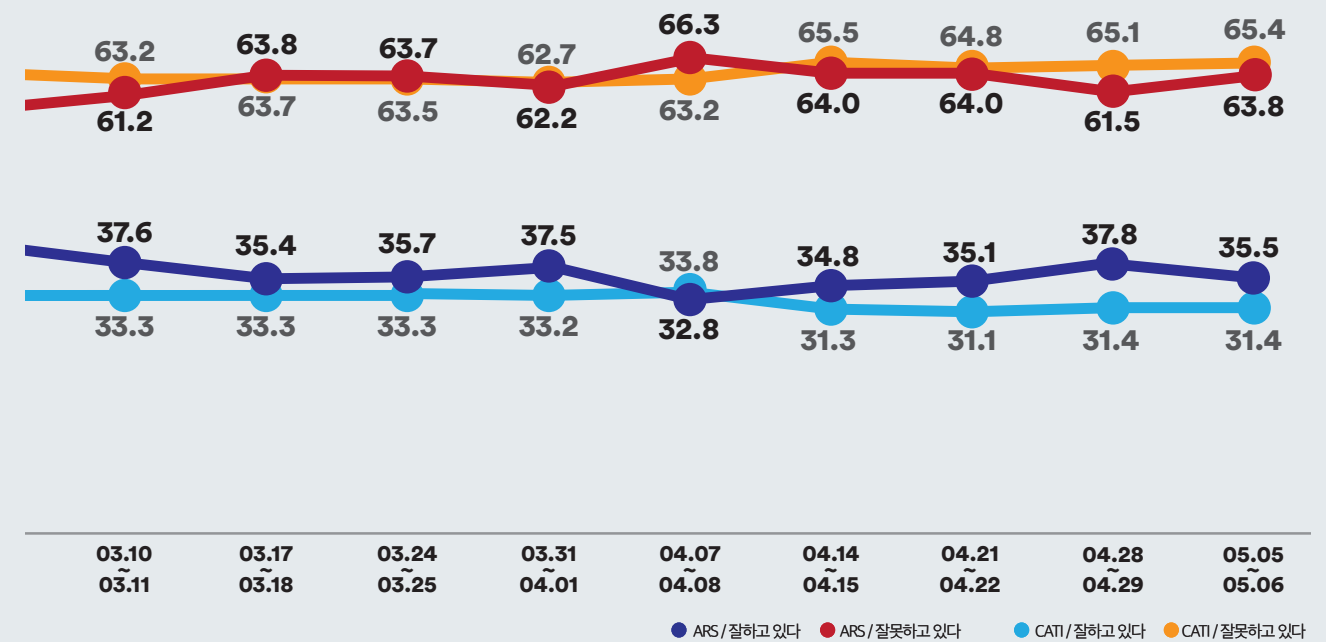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3%p 하락, 부정평가 2.3%p 상승 (격차 28.3%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변동없음, 부정평가 0.3%p 상승 (격차 34.0%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앞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편이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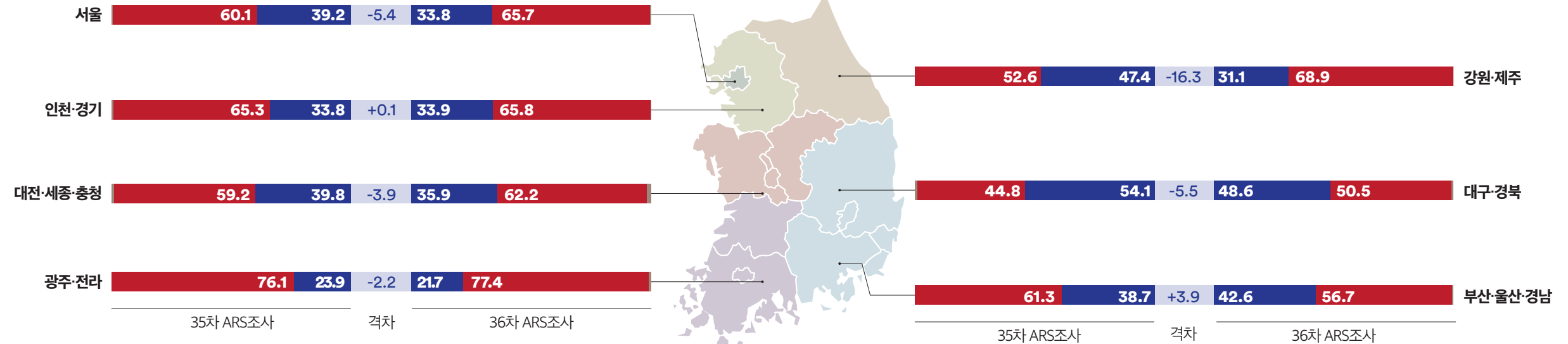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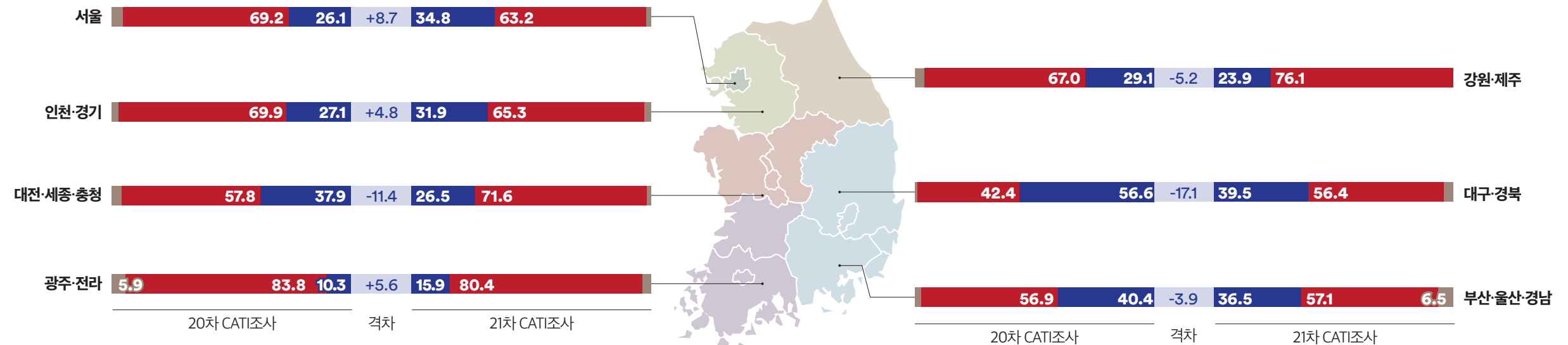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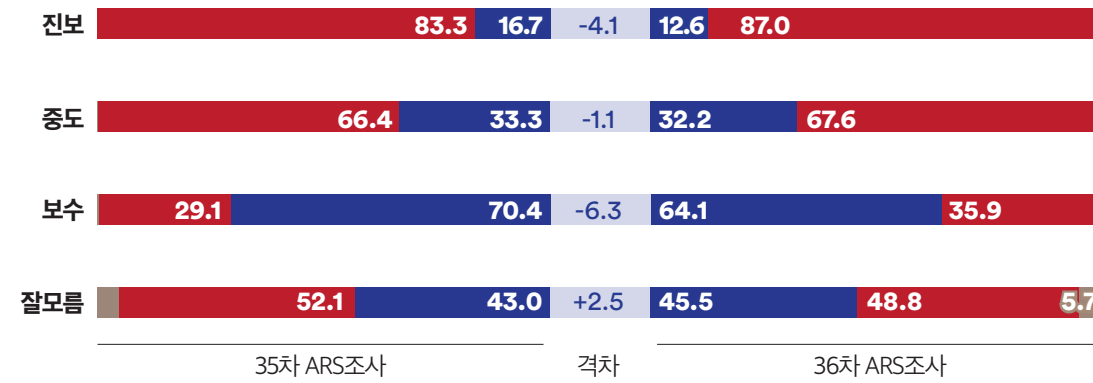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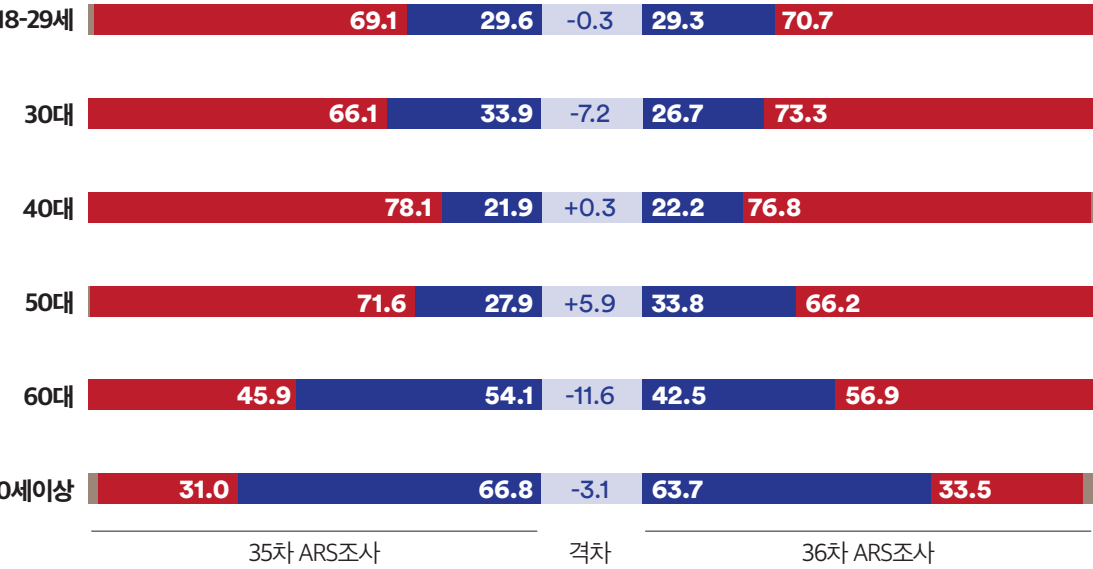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I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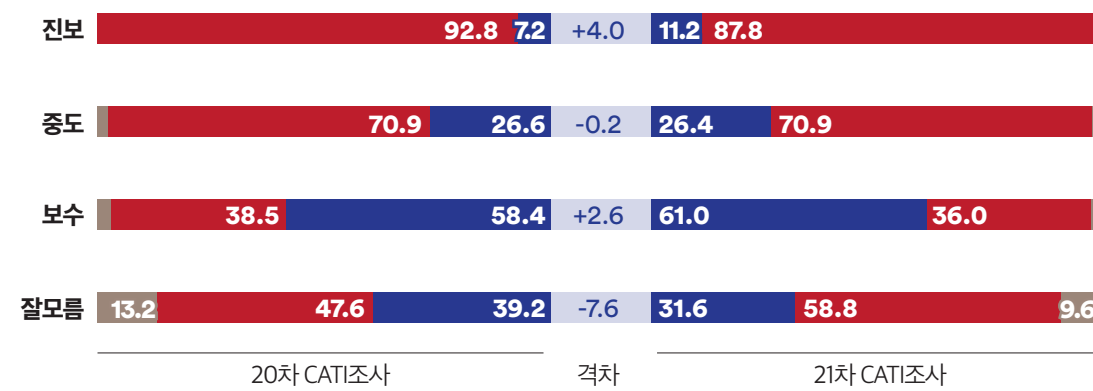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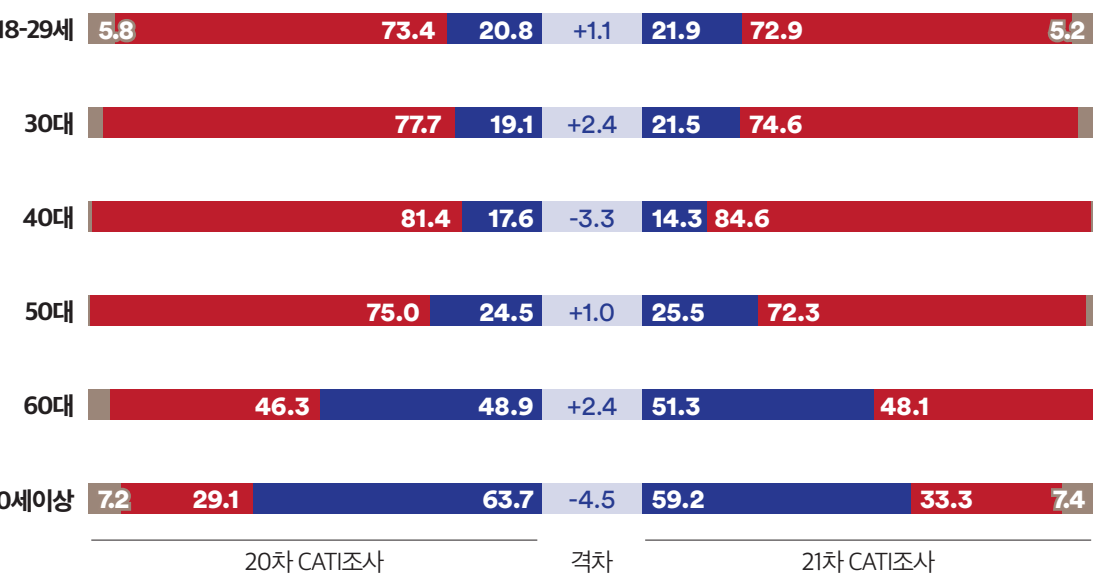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윤대통령 취임 1년

ARS & CATI / CATI

취임 1년 평가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보도 평가

윤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윤 대통령의 경제문제 해결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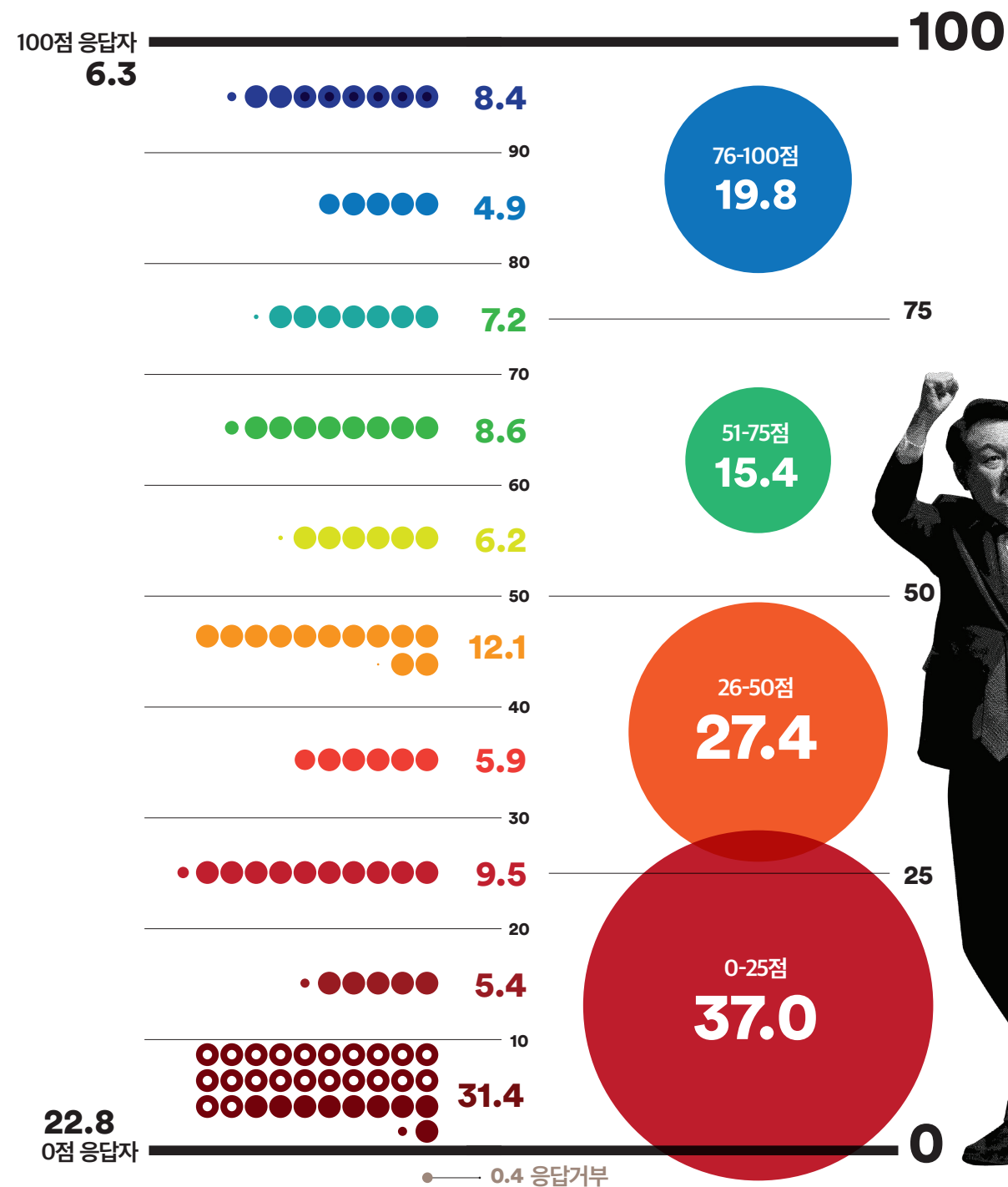
5월 10일, 윤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평가해보고
그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윤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 정확성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윤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를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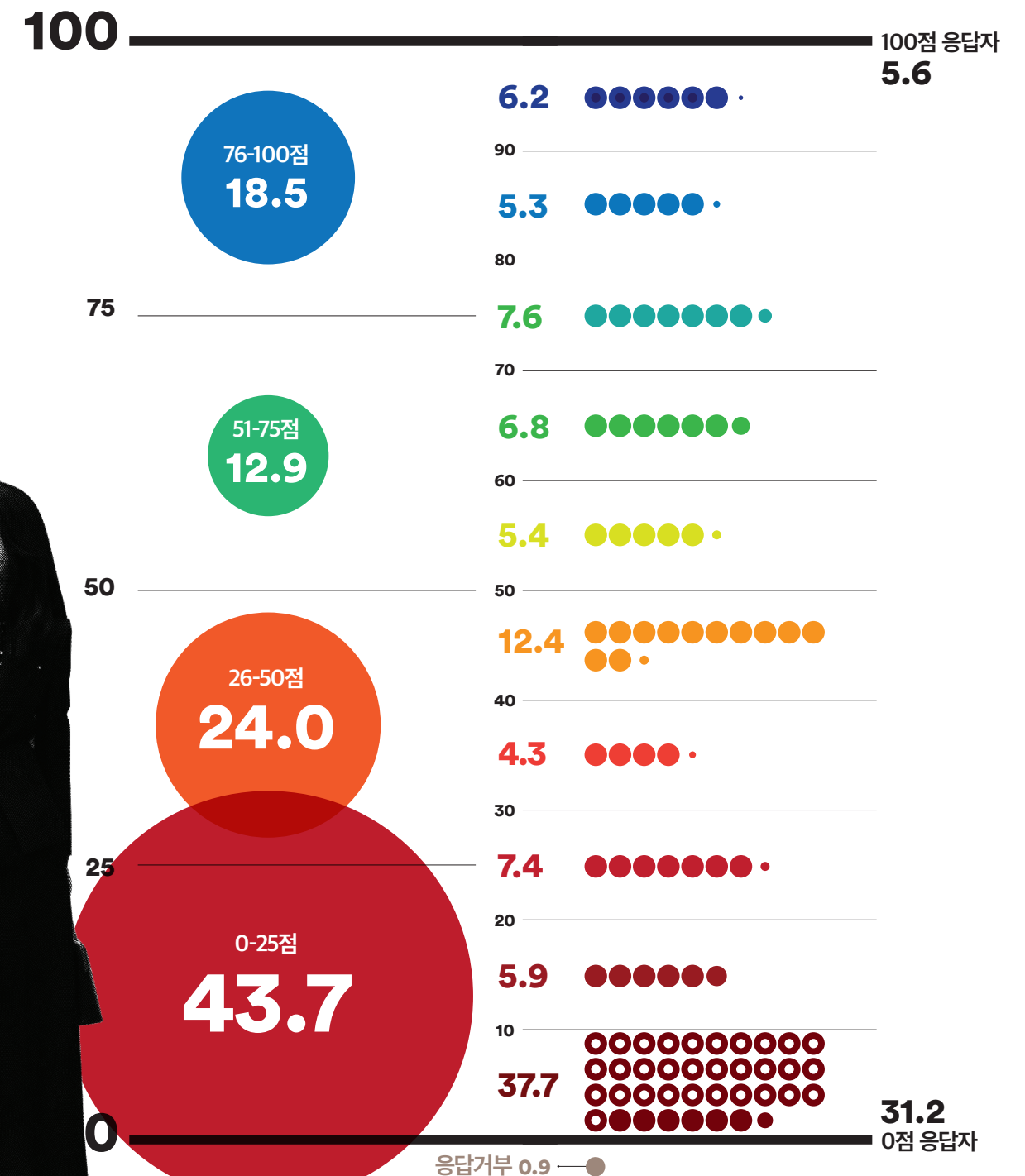
취임 1년 평가

Q.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윤 대통령 취임 1년차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50대 이하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50점 이하라고 응답, 특히 40대 응답층은 51.6%가 10점 이하 점수를 매김 '50점 이하' 응답은 무당층(73.3%), 중도층(68.8%)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10명중 2명은 0점으로 평가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배우자 역할 수행에 대해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윤 대통령 평가와 마찬가지로 50대 이하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50점 이하라고 응답 전체 응답자 10명중 3명은 0점으로 평가, '0~25점'이란 응답은 40대에서 65.2%로 가장 많았음 10점 구간 집계에서는 '0~10점'이란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음 (윤 대통령 31.4%)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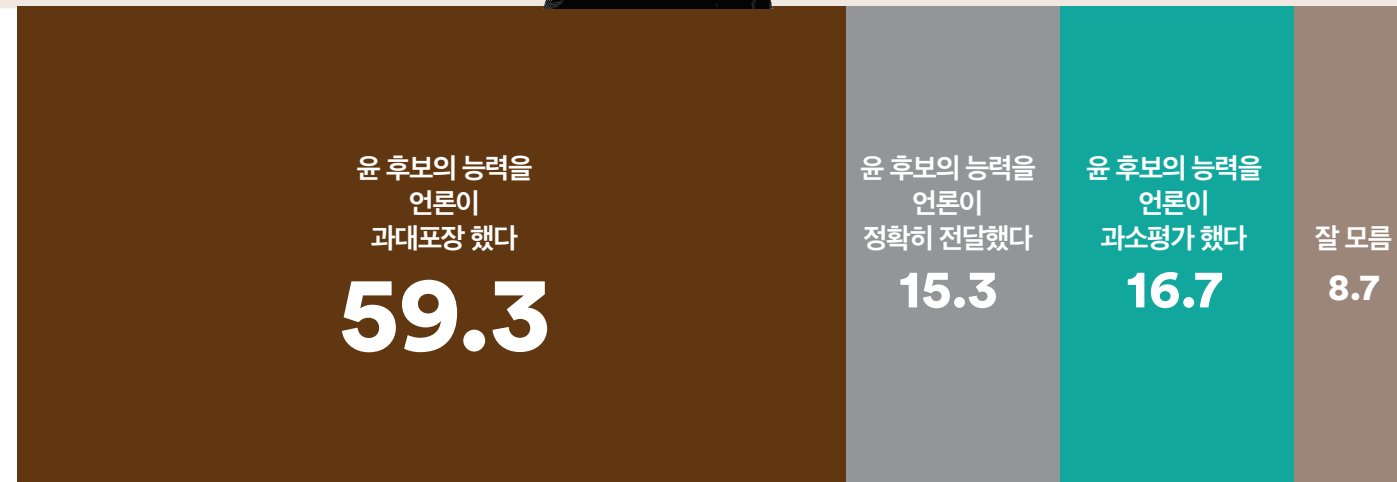
후보시절의 언론 보도 평가

Q. 윤 대통령의 능력치가 후보 시절에 언론을 통해 정확히 전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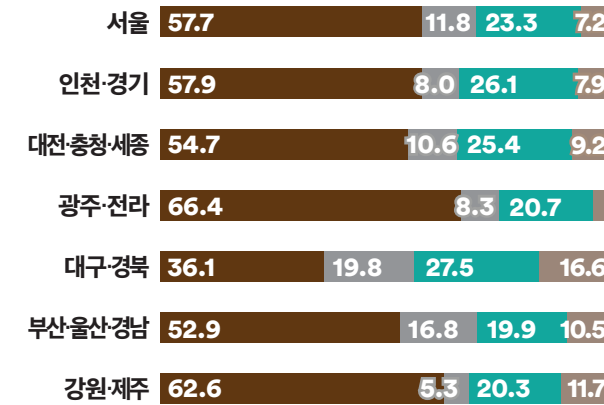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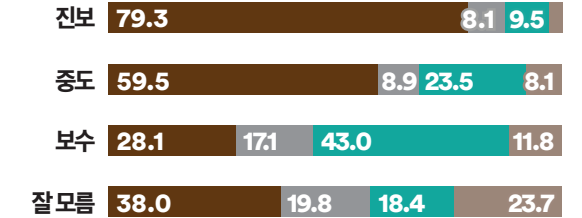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5명 이상이 '윤석열 후보의 능력을 언론이 과대포장 했다'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 성별, 60대 이하 응답층,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과대포장 했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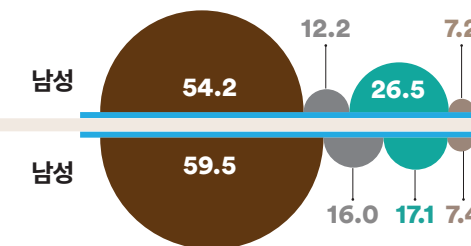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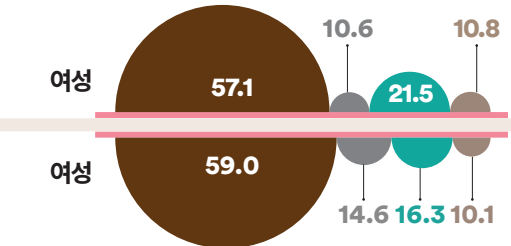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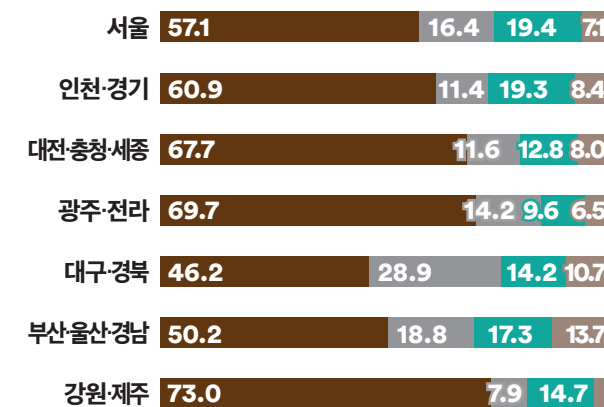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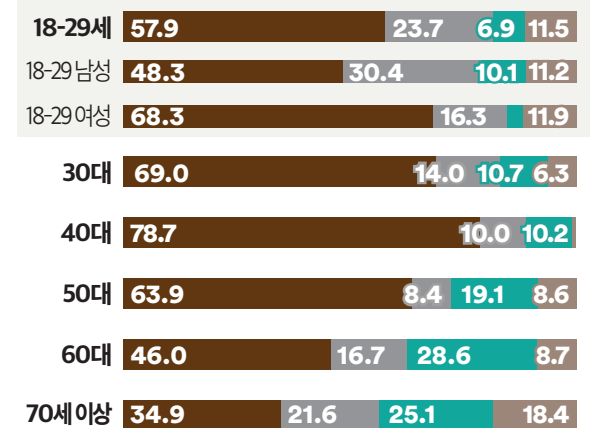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과대포장 했다, 정확히 전달했다, 과소평가 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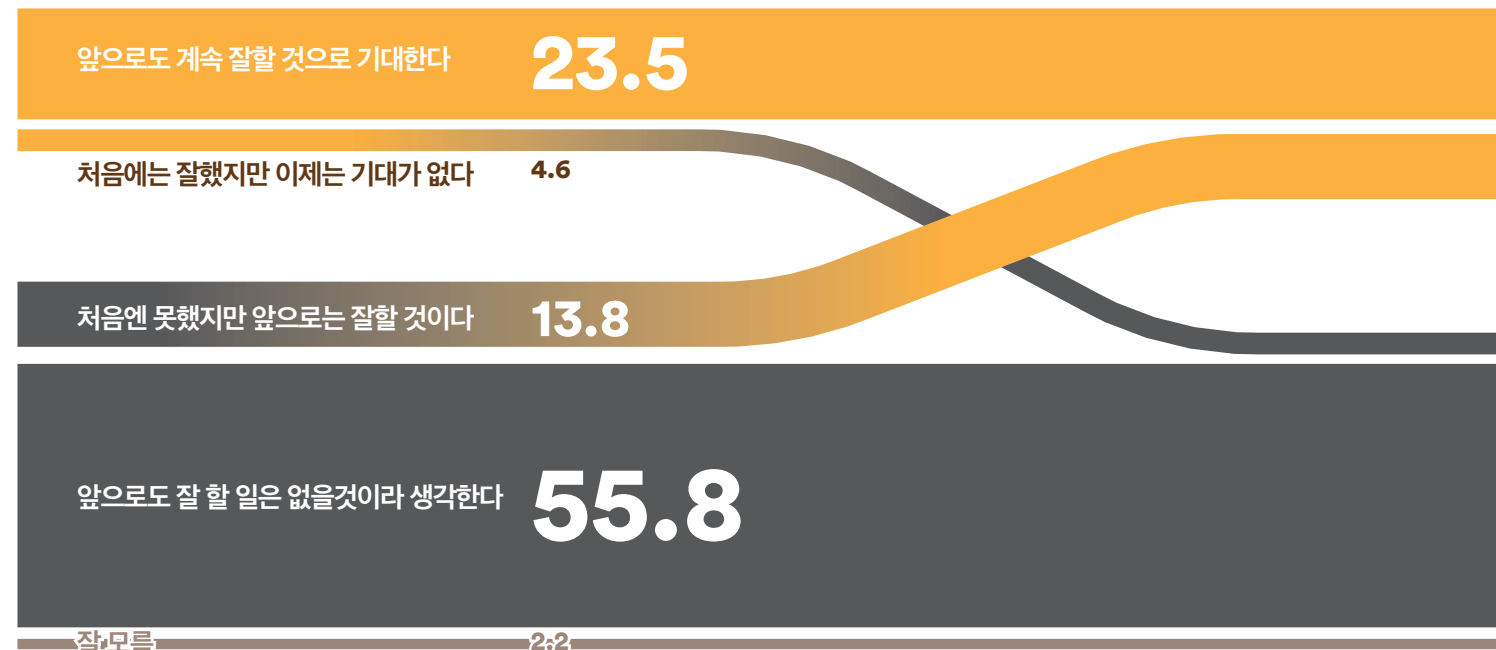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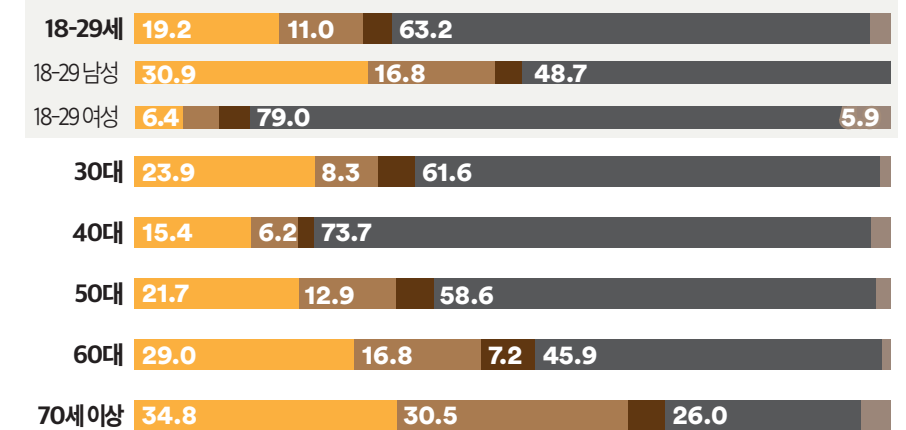
윤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Q.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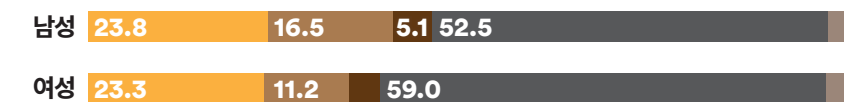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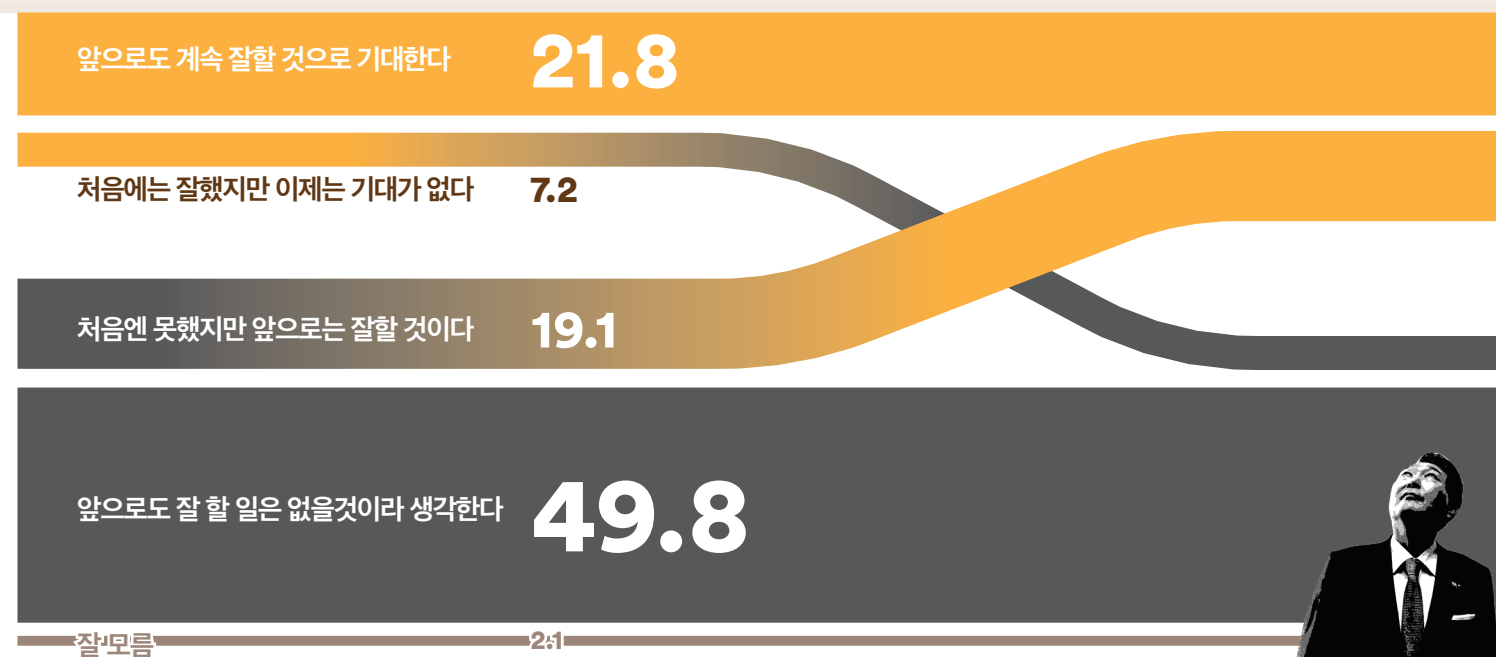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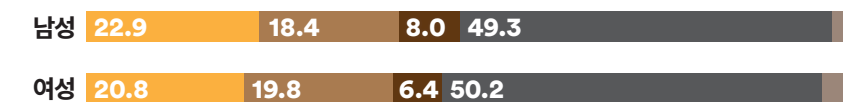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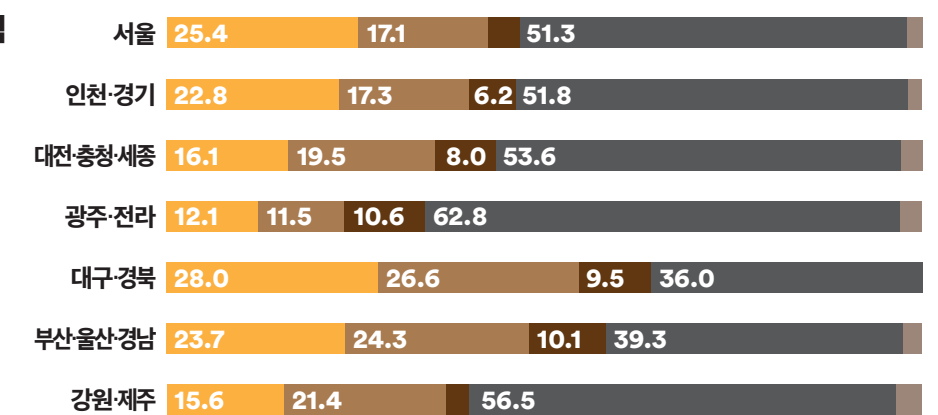
CATI



성별



권역



두 조사 모두 10명 중 5명 정도(ARS 5명 이상)는 '앞으로도 잘 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
모든 성별,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앞으로도 잘 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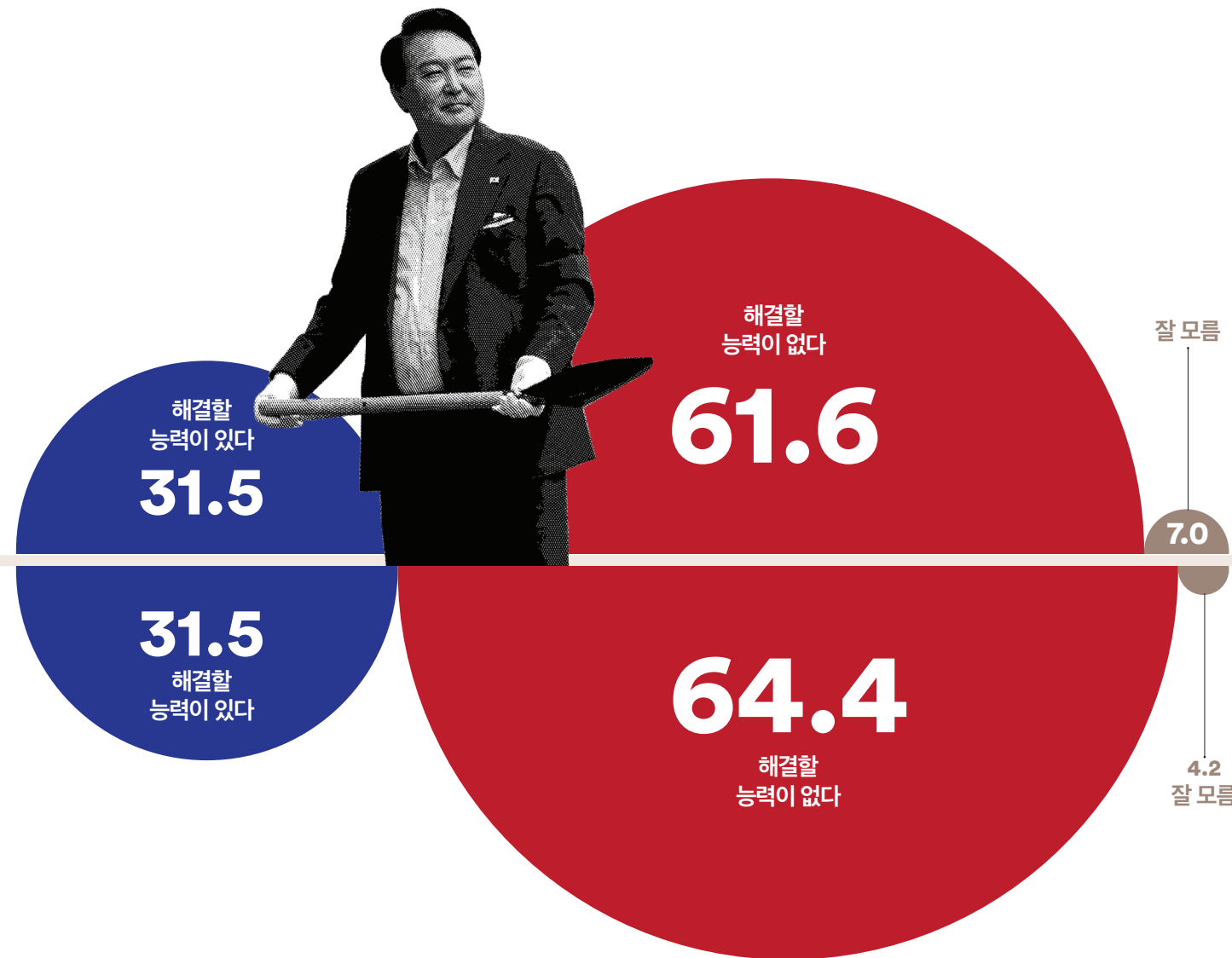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윤 대통령의 경제문제 해결능력 평가

Q. 윤 대통령이 최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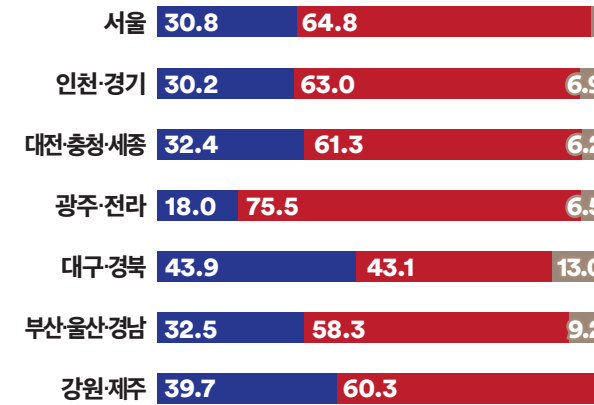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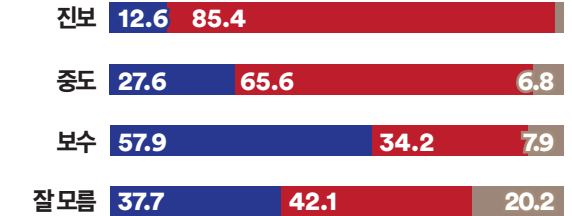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응답
모든 성별, 60대 이하 응답층,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해결능력 없다'는 응답이 우세하거나 앞서지만
7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해결 능력 있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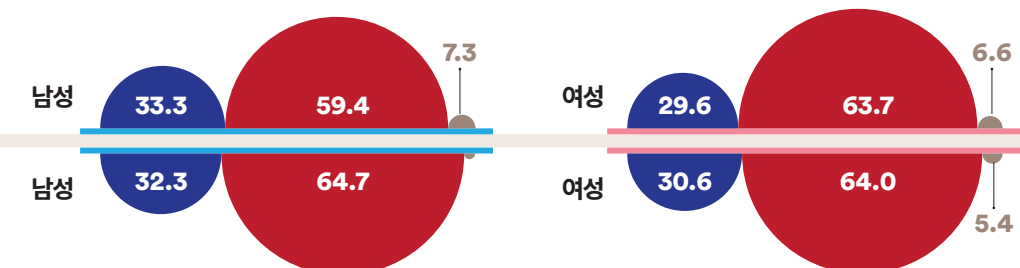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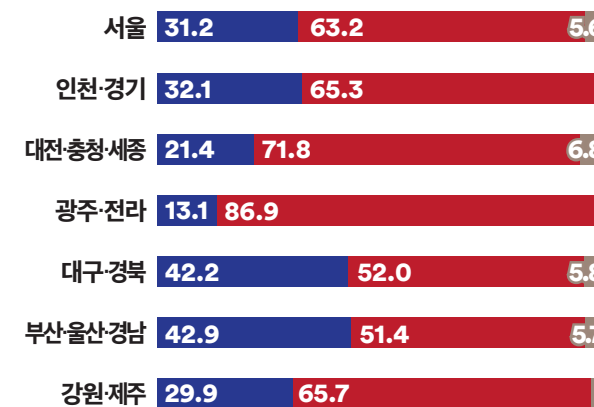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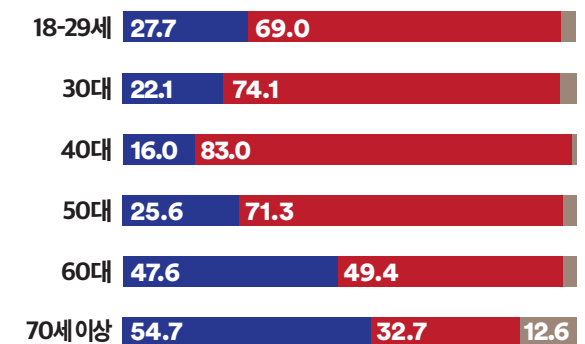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외교, 한일 회담

ARS & CATI / CATI

한일 회담 주요의제

동맹인가 아닌가

먼나라 이웃나라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반도의 미래

대한민국 안보상황

기시다 총리 한국 실무 방문을 앞두고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의제와

현 정부의 한일관계 방향을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를 넘어서는 한일 관계 추구', '한일관계 정상화' 등

전 정부와 다른 한일 관계 방향성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윤 정부의 외교방향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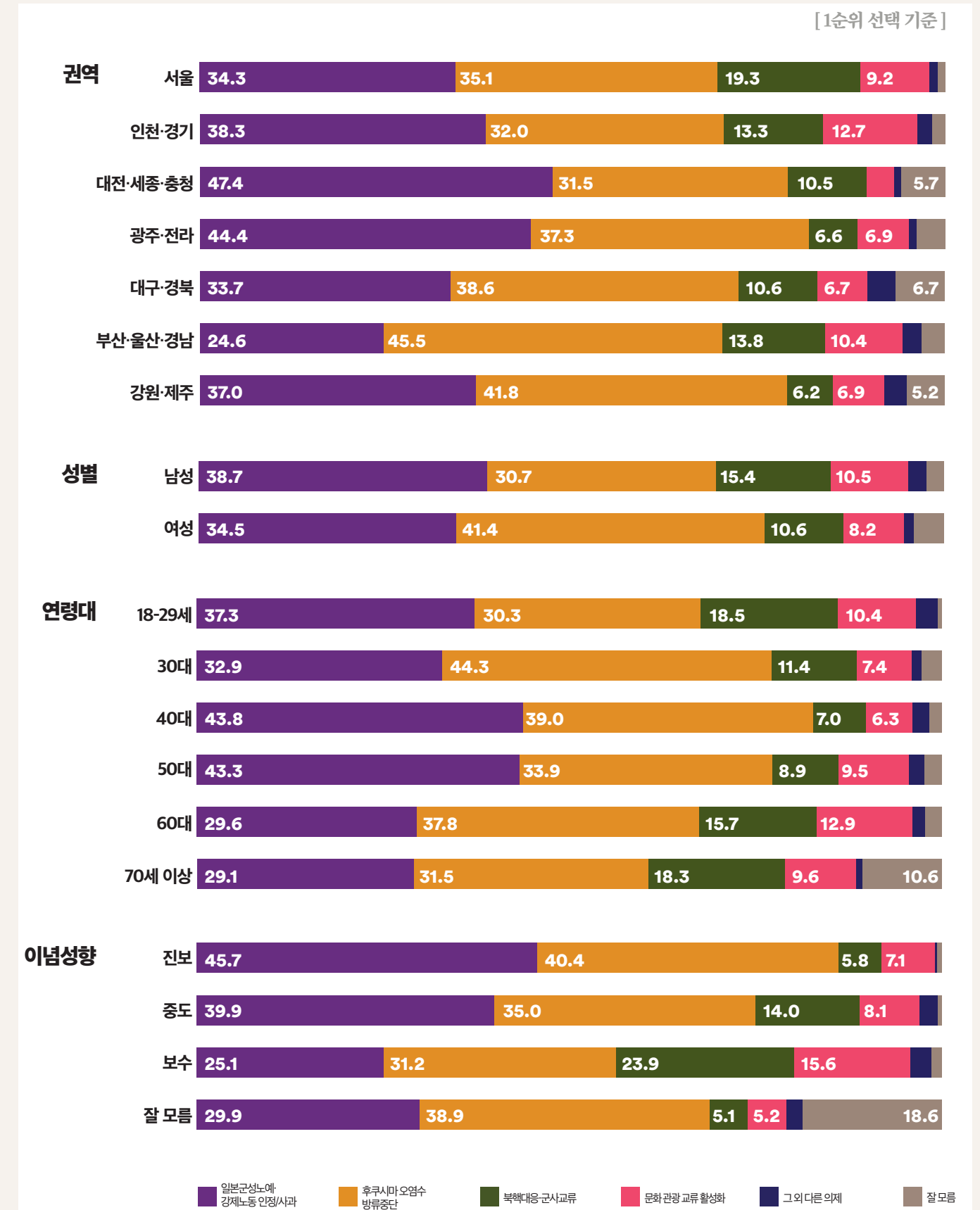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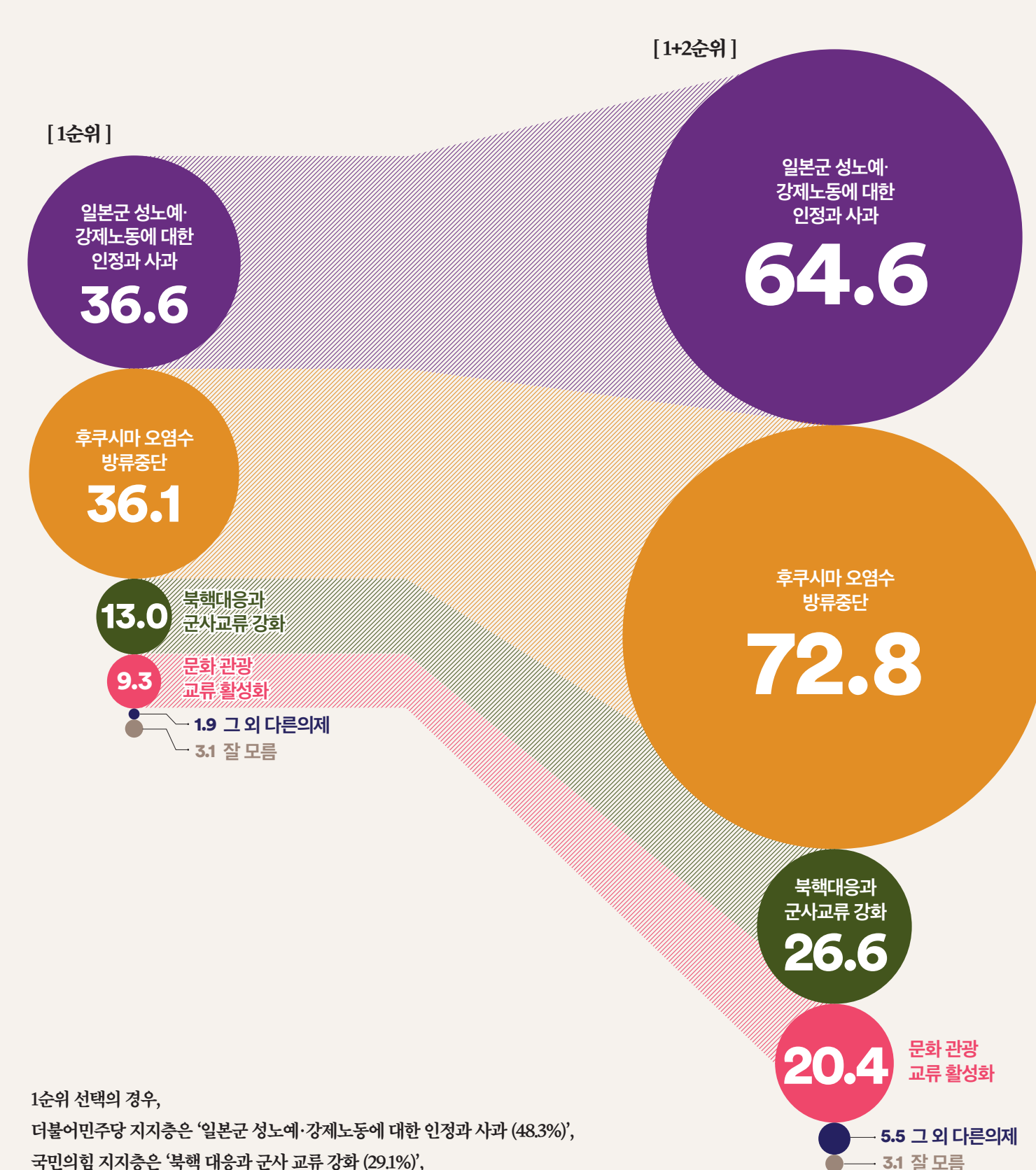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한일회담 주요의제

Q.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합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의제를 우선 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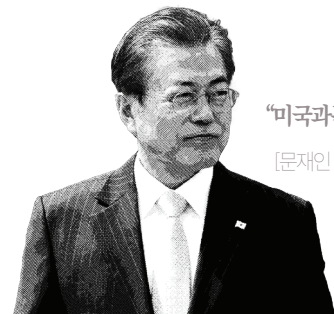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동맹인가 아닌가

Q.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 동맹까지 추구합니다. 일본과의 군사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뉴욕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 2023년 한일 정상회담]

침략 역사 때문에
군사 동맹으로는
믿을 수 없다
62.2

우방국으로
군사 동맹으로도
의지할 수가 있다
32.7

잘 모름
5.1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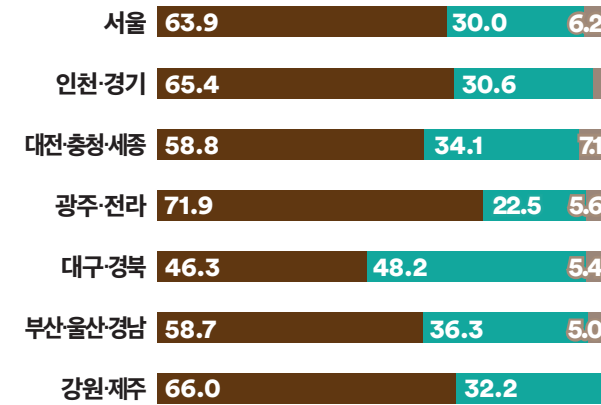
침략 역사 때문에
군사 동맹으로는
믿을 수 없다
60.3

우방국으로
군사 동맹으로도
의지할 수가 있다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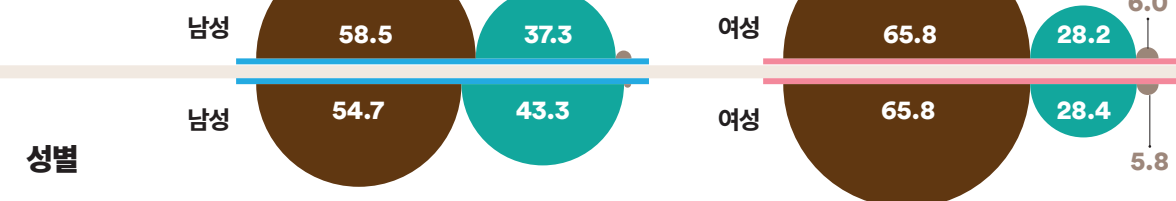
잘 모름
3.9

두 조사 모두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침략 역사 때문에 군사 동맹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응답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 60대 이하 연령대,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는 ‘믿을수 없다’는 응답 앞섬
70세 이상 연령대는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동맹으로도 의지할 수가 있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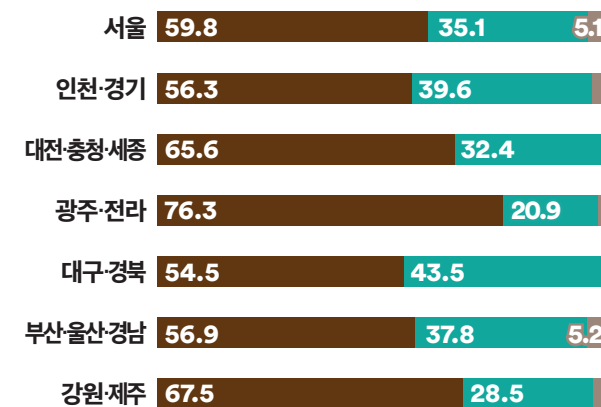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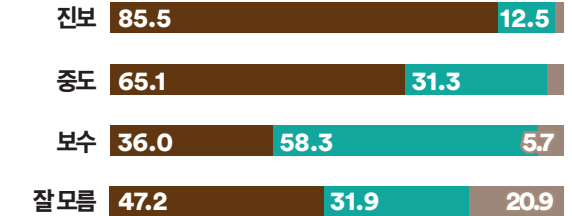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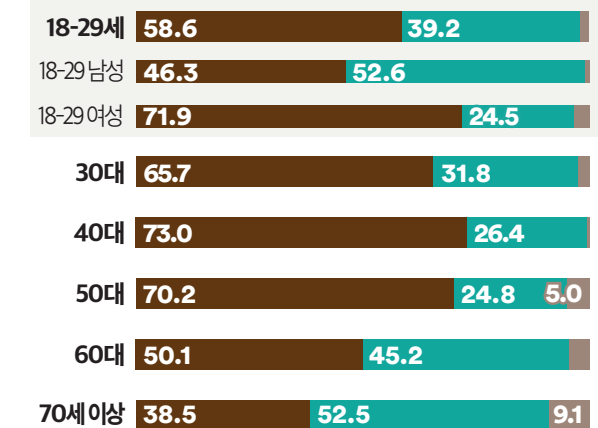
권역



이념성향



연령



■ 믿을수없다 ■ 의지할 수 있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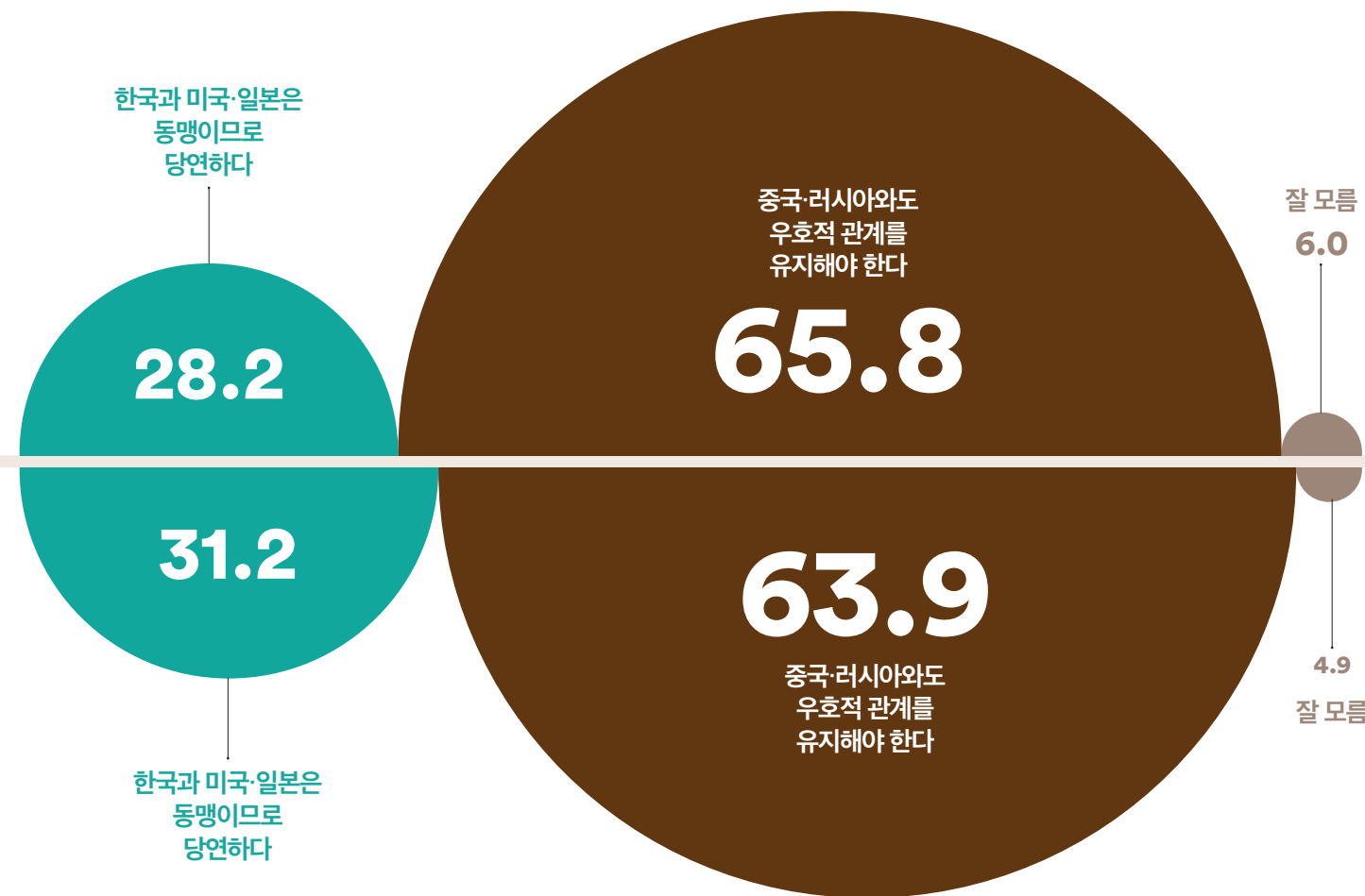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먼나라 이웃나라

Q. 윤 대통령이 미국·일본과는 밀착하고 중국·러시아를 멀리하는 경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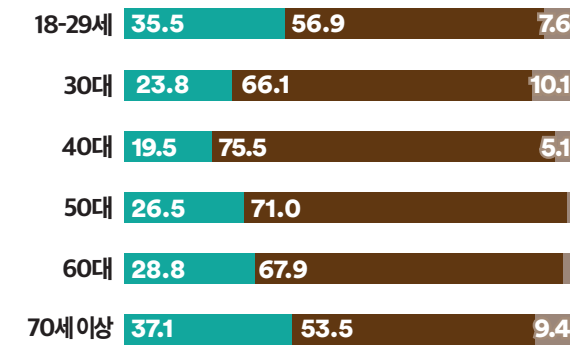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정도는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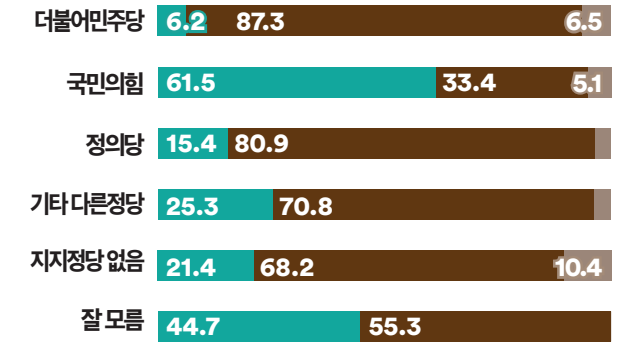
모든 권역, 성별,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적 관계 유지'라는 응답 우세

CATI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18-29세 남성층, ARS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미일은 동맹이므로 당연하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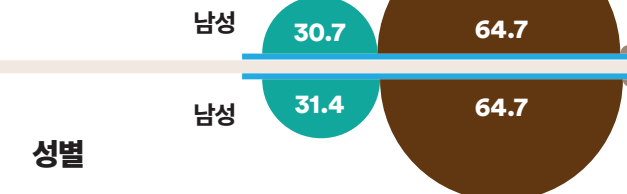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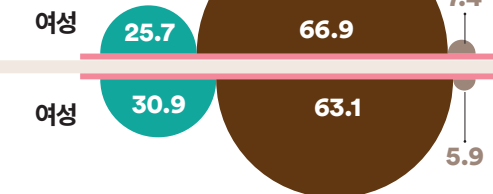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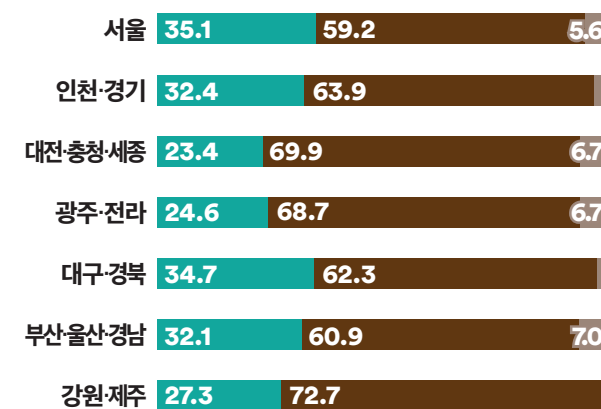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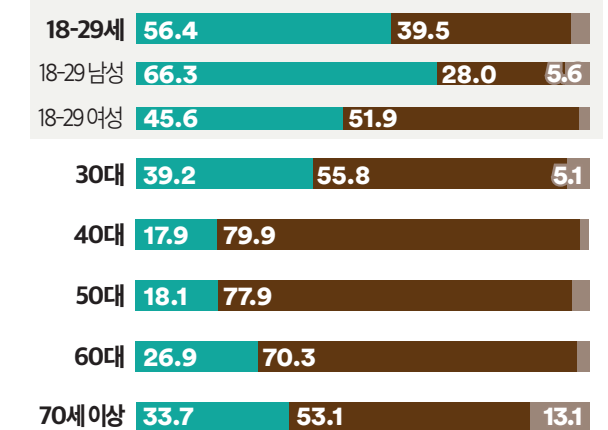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한미일 동맹만 강화 중러 우호적 관계 필요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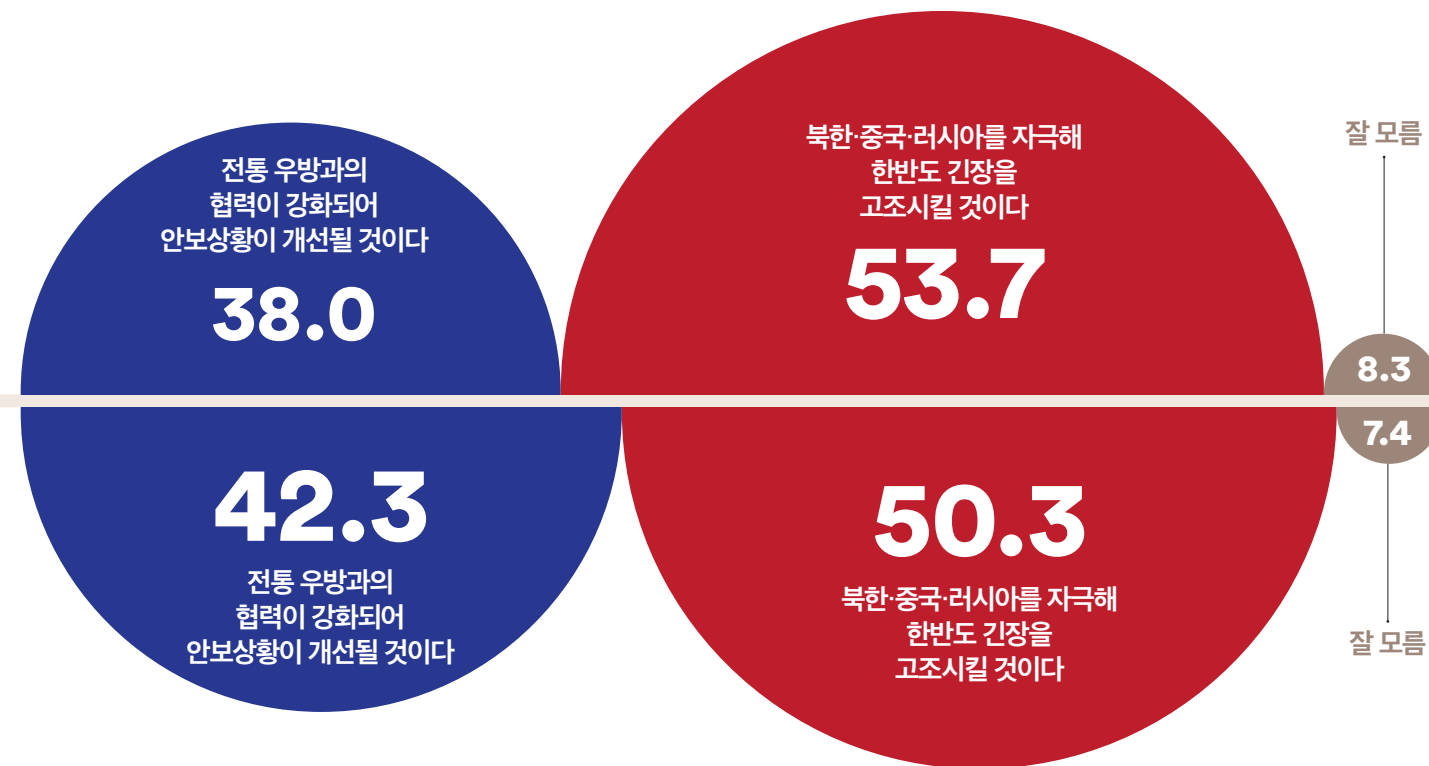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반도의 미래

Q.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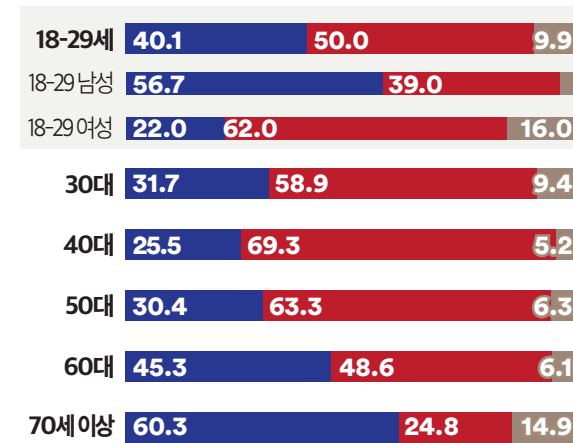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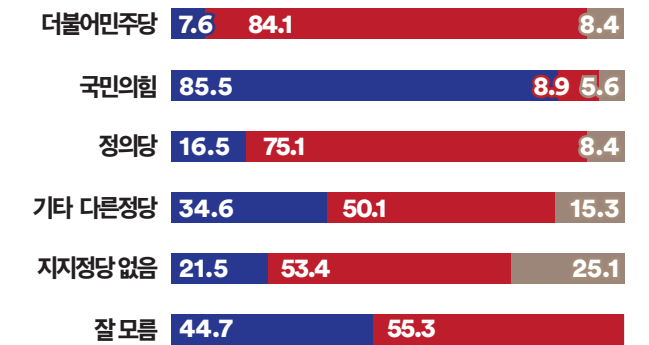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40·50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응답이 우세하고, 70세 이상은 '안보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응답이 우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응답은 CATI조사의 TK·PK, ARS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앞섬
 CATI조사는 경인·충청권, ARS조사의는 수도권·호남권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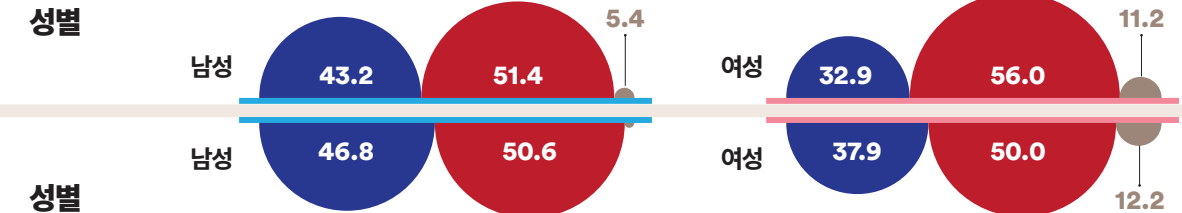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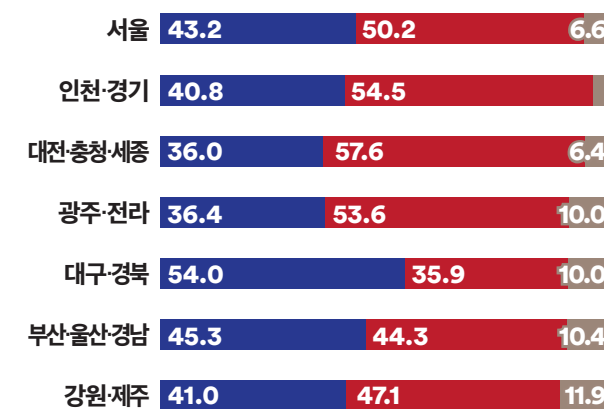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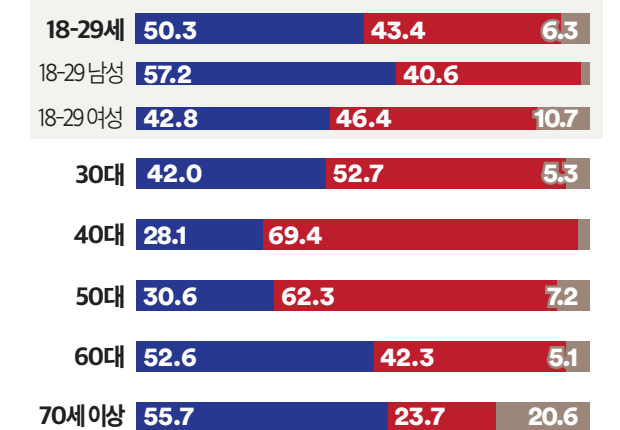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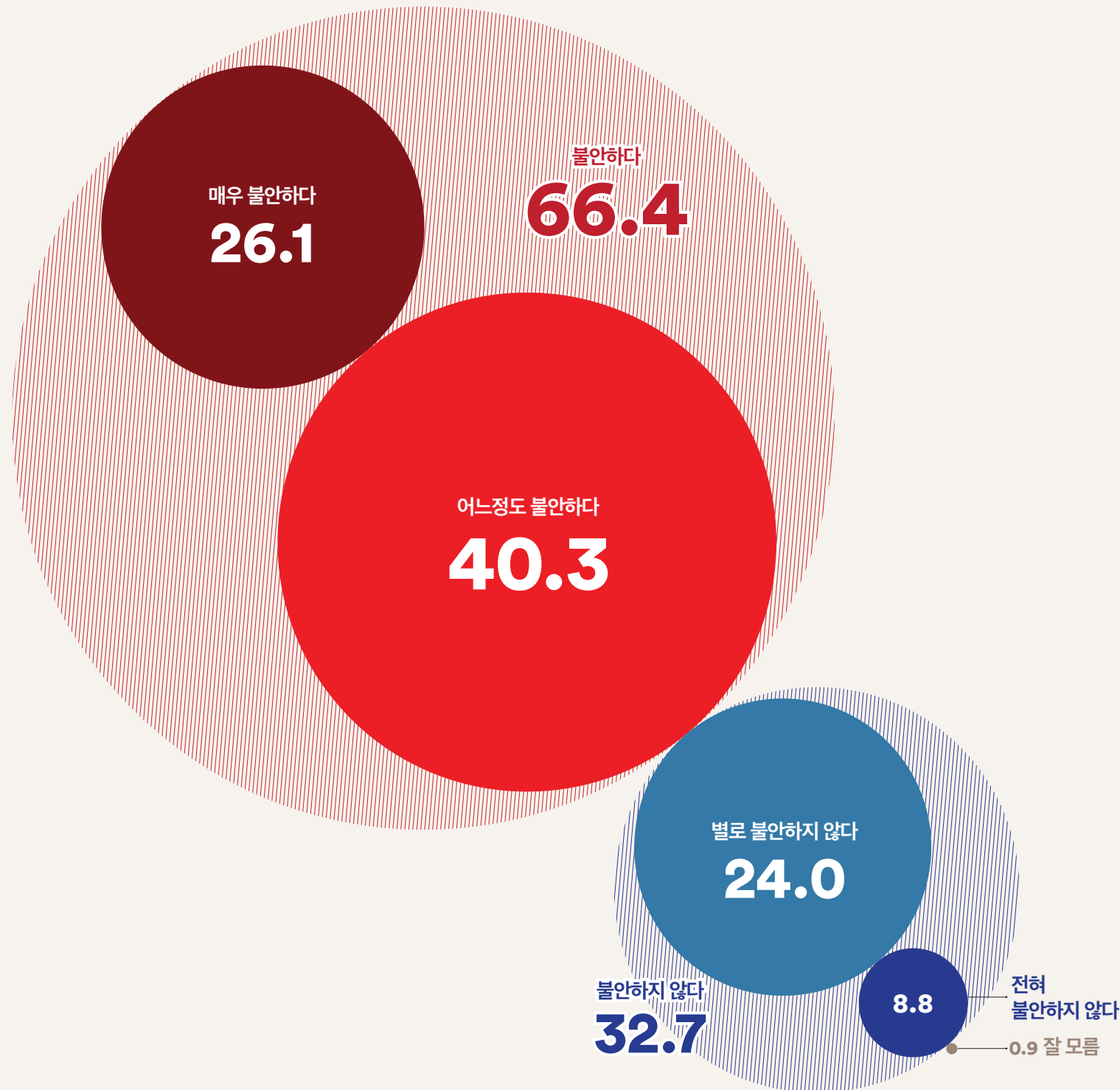
■ 안보상황 개선될 것 ■ 한반도 긴장 고조될 것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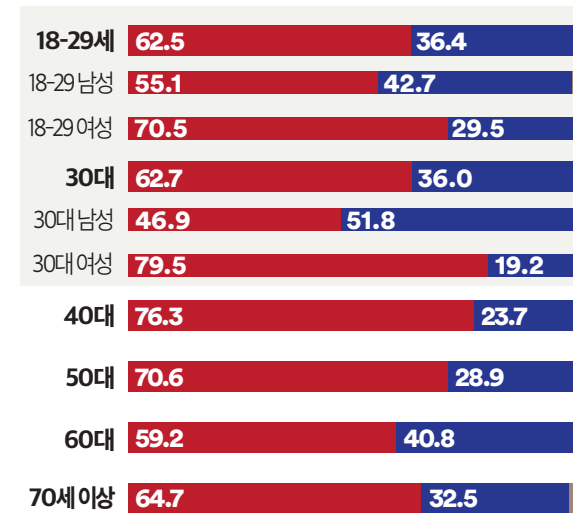
대한민국 안보상황

Q. 북한과 국지전 우려 등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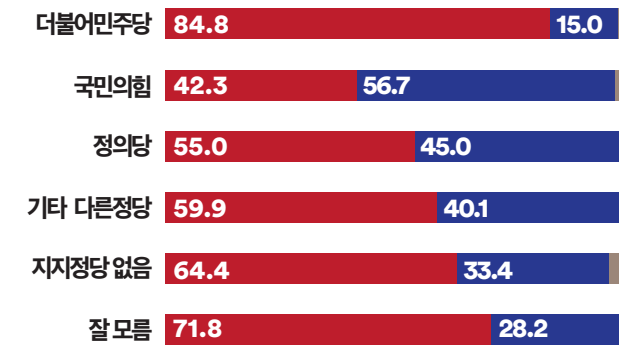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불안하다'고 응답
 모든 성별·연령·권역에서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우세
 호남·충청권, 40·5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여성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더 강하게 나타남
 30대 남성의 경우 '불안하지 않다(51.8%)'는 응답이 '불안하다(46.9%)'는 응답을 소폭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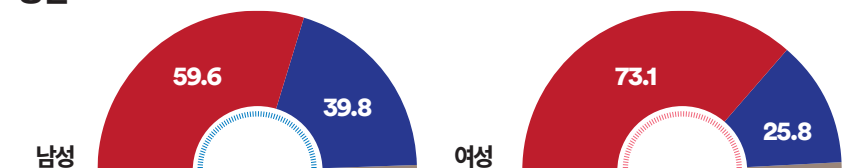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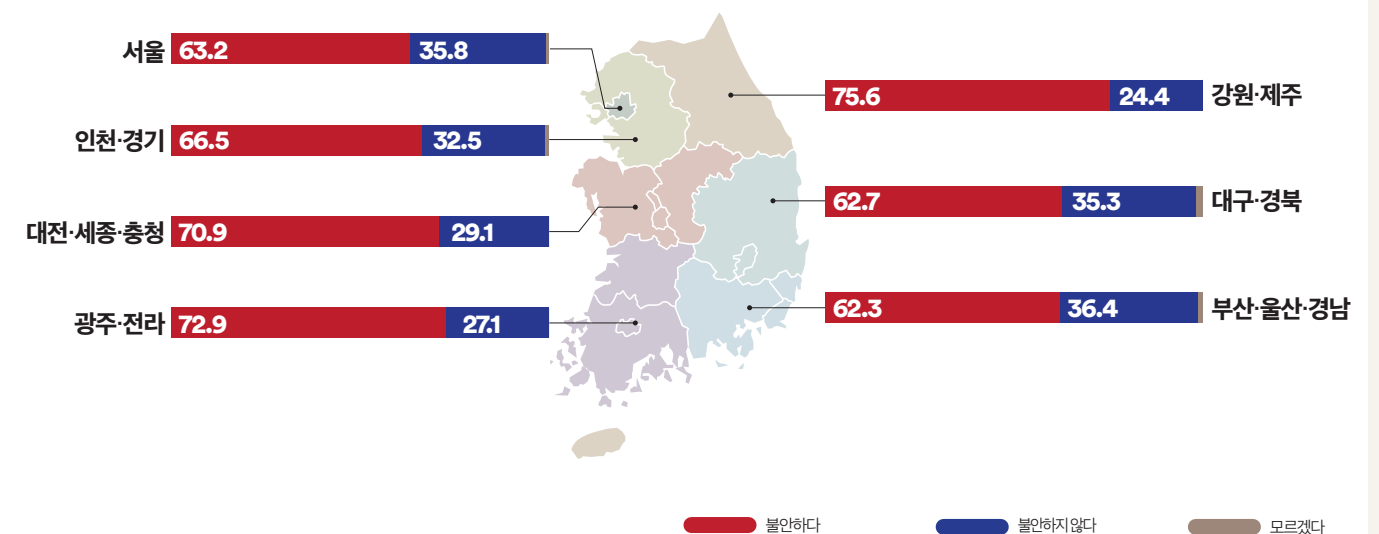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REPORT #202305_02

여론조사꽃 제38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